

헨릭 스트롬버그 《대안적 내러티브》 퇴적된 기표의 오브제를 관통하는 기의에 관한 시(詩)

글 박민경 독립큐레이터

스웨덴 출신 아티스트 헨릭 스트롬버그(Henrik Strömberg)의 전시 《대안적 내러티브》(9.27~10.12 | KP 갤러리)가 열렸다. 헨릭 스트롬버그는 런던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프라하에서 사진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작업 중인 아티스트로, 전시장에는 그의 실험적인 작품이 소개되었다. KP 갤러리 소속 해외 큐레이터 키아라 발치 마짜라(Chiara Alexandra Valci Mazzara)가 기획하여 작가와 함께 내한했는데, 이에 작가와 기획자를 만나 사진과 설치작품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한 ‘대안적 내러티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안적 내러티브”로 번역된 전시의 원제는 “Limb, Strata, Edible seeds”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헨릭: 팔이나 날개를 의미하는 Limb, 겹겹의 층(표층)을 의미하는 Strata, 그리고 본질을 의미하는 씨앗, Edible Seeds(먹을 수 있는 씨앗)라고 명명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함축되고 내포된 의미적 소통을 위해 한국어 “대안적 내러티브”라고 번역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묘사할 수 있는 원초적 은유를 통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지의 세상으로 연결된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조각, 영상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진 전시가 아주 흥미롭네요!

헨릭: 매체의 경계를 허물어 조각(오브제)들과 사진적 기록물들, 그리고 해체되고 변형된 사진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은유적 암시를 이용한 작업으로 물질의 해체, 부패 그리고 변형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질적인 사물의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서사로 탈바꿈된 모호한 순간을 표현했어요.

키아라: 장면, 공간, 요소, 인물, 그리고 추상적 형태로 표현된 헨릭의 작업은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것을 옮겨주는 행위를 통해 타자를 인식하는 더 깊은 성찰의 감각을 내

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간의 흔적을 의미하는 표층을 오브제를 통해서 사진과 조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인공의 것과 자연이 만든 것의 조합으로 된 오브제를 이미지화한 것이지요. 작품을 통해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내러티브 생산의 경험을 유도해서 또 다른 미지의 세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조합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헨릭: 겉으로 보기에 이질적인 이미지와 오브제를 조합해서 관계의 연관성과 기존의 내러티브를 제거하는 것이 작업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미지와 오브제를 정렬하고 조합하면서 모호한 서사와 세부적인 상을 만들어 내는데, 다양한 사물을 재배치하고 재조합하는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전시된 사진 중 씨앗을 먹고 있는 새를 촬영한 이미지가 있어요.(p.85) 어느 날 우연히 작업실 창문 밖에서 새가 씨앗을 먹고 있는 것을 촬영한 것이예요. 제 작업실에는 수집해 놓은 물건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새의 뼈의 일부를 연결하여 사진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의 컨셉이 잡히고 지금의 전시로 이어졌어요.

키아라: 헨릭은 종종 일상에서 흔히 보는 레디메이드(ready-made)나 또는 레디메이드가 아닌 다양한 오브제를 갖고 재조합해서 작품의 요소로 만들어 나갑니다. 씨앗이라는 대상을 예를 들어 연계성을 부여하자면 씨앗은 나무에서 이후 꽃이라는 개연성으로 연결되겠지만, 헨릭은 씨앗을 나무나 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이질적 대상을 연결해서 모호한 이미지로 변형해 나가죠.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통해 예측불허의 감각이 촉발되는 것이죠.

헨릭 스트롬버그는 만 레이(Man Ray)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아 레디메이드(ready-made), 아상블라주(Assemblage) 등의 개념을 사용한 오브제를 사진으

▷ In branches, 2018
©헨릭 스트롬버그





<1 Limbs-Strata #02, 2022
 ©헨릭 스트롬버그
 △ Shell On Large ©헨릭 스트롬버그



로 혹은 조각과 비디오, 그리고 설치 작품으로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예술가가 제작에 개입하지 않은 예술작품으로서의 '레디메이드' 개념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에서 시작했다. 뒤샹의 작품 〈샘〉(Fountain)에서 영향을 받은 만 레이가 날카로운 구리 못이 박힌 다리미를 오브제로 만든 〈선물〉(Gift)을 만들었다. 레디메이드의 개념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오브제가 되어 사물이 지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했듯이, 헨릭의 오브제 역시 본래 의미를 상실한 기표로 존재화 되었다. 헨릭의 사진 속 손은 새 뼈의 일부와

나뭇 가지 등, 기억(기억)이 상실된 기표로 대변되는 사물을 옮겨주고 있다.(p.86) 오브제의 겹데기 속에 숨겨진 본래의 의미를 변형하는 형태로써 암시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가에 의해서 오브제가 되어버린 사물의 형태(기표) 안에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기억되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의 의미(기억)를 옮겨주는 의도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진과 조각뿐 아니라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설치작품 안에 사용된 각각의 오브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헨릭: 인공의 수영장을 배경으로 물에 떠 있는 앞을 촬영한 영상을 플라스틱 사각 물통에 프로젝트 했어요.(p.88)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통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해 오염된 환경을 표현하고자 했고 앞의 움직임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보여주는 형식을 통해 시간성의 과거를 의미하는 레이어(Layer)를 담고 있어요.

키아라: 헨릭이 말하는 레이어는 표층(Strata)을 의미합니다. 헨릭이 오래 전부터 해온 설치작품 중에 사용된 오브제 중에는 여러 종이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위에 크리스탈이나 유리나 같은 이질적인 사물을 배치한 작품이 있어요. 책처럼 보이는 종이의 각각의 겹 안에 표층이 존재하죠. 사진 이미지와 문학적 서사, 철학적 의미 등이 내용으로 된 겹겹의 종이들이 레이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없는 한 겹의 빈 종이와 밧줄로 연결된 유리로 조합한 오브제를 함께 배치한 설치작품으로 전시되었지요.(p.88) 사진으로 전시된 다른 작품 속 오브제는 트로피의 일부였던 반침이에요. 지금은 사라진 트로피의 상징과 의미가 표층으로 담겨 있죠. '승리의 순간'이

라는 과거 시간의 레이어가 함축되어있는 것입니다.(p.87)

그렇다면 과거의 시간성을 담은 표층(strata)과 팔(limb)의 연결이 내려티브, 즉 서사를 이루는 것이군요. '대안적 내려티브'가 의미하는 '새로운 서사로 탈바꿈하는 그 모호함'에 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헨릭: 제 작품을 보면 이해하고자 할 때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는 시적인 서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연결하고, 이때 생성되는 '찰나적 변형, 탈바꿈'을 감지하게 하지요. 이러한 감각 속에 느껴진 무형 안에 내재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은 성찰로 이어지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키아라: 씨앗이 자라서 줄기를 형성하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예를 들면, 우리는 그 형태적 변화를 이루는 순간을 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의 과정이 너무 느리거나 어쩌면 너무 빠르기 때문이겠지요. 헨릭의 작업은 우리 환경 안의 모든 존재의 삶과 죽음, 부패와 변형의 순간을 표

대안적 내려티브 전시 일부 및 전경

현해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고 더 나아가 재해석하게 합니다.

전시의 주제인 대안적 내려티브(alternative narative)는 작가가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과거의 시간이 퇴적된 표층에서부터 그 서사가 시작된다. 한 생명의 죽음이 퇴비가 되어 또 다른 생명으로의 삶으로 순환되는 것처럼, 퇴적화된 표층을 통해 다른 형태로의 변형은 씨앗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의 순환을 암시한다. 기억이 상실된 오브제와 이미지의 개연성 없는 관계는 시적인 관계(poetic relationship)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헨릭 스트롬버그에 의해 창조된 작품에는 물질적 의미의 소멸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감각을 통해 의도된 그의 대안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자연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 그리고 그 관계를 둘러싼 생태계 안의 모든 삶과 죽음이 퇴적되어 있다. 자아와 타아의 연결을 둘러싼 세상 속에 느끼는 찰나적 감각을 통해 시적인 서사로 표현된 겹겹의 층을 이루고 그 안에 응집된 함축적인 경험을 제시한다.

헨릭 스트롬버그(Henrik Strömberg)는 영국 런던예술대학(UAL) Camberwell College of Art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체코 프라하 FAMU, Academy of Performing Arts에서 사진 및 사진 역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9-2020 이탈리아 나폴리 Fondazione Morra 재단 개인전, 2018 스웨덴 고틀란드 Ann Wolff 재단 수상 개인전, 2017년 독일 베를린 Auswärtiges Amt/ Foreign Ministry of Germany 개인전 등과 2022년 독일 베를린 Schloss Biesdorf 전시, 2022년 스위스 제네바 Château Nyon 전시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키아라 발치 마짜라(Chiara Alexandra Valci Mazzara)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독립 큐레이터 및 저자로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나폴리 모라 재단(Fondazione Morra) 레지던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 La Sapienza University과 Ara Pacis- Next Stop 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및 현대미술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 6월 부터 서울 K.P Gallery 인터내셔널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박민경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예술대학교(UAL) 첼시칼리지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Fine Art를 전공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사진센터 CCP 주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